

1960년대 『한양』 소재 재일 한인 시문학 연구*

하 상 일**

차 례

I. 머리말	2. 조국의 역사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참여
II. 『한양』 소재 재일 한인 시문학의 현황	3. 재일 한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 구현
III. 『한양』 소재 재일 한인 시문학의 주제의식	4. 자연을 통한 자기성찰과 내적 의지
1. 고향 상실의 비애와 조국을 향한 근원적 그리움	IV. 맺음말

I. 머리말

지금까지 해방 이후 재일 한인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체로 소설문학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즉 김달수, 김석범, 이희성, 김학영 등 특정 소설가에 집중된 작가론이 재일 한인 문학연구의 일반적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HS0013)

** 동의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인 경향이었던 것이다.¹⁾ 물론 이들 주요 재일 한인 작가에 대한 연구는 해방 이후 재일 한인 문학의 형성과정과 이데올로기적 기반 그리고 재일 한인으로서의 자기정체성과 언어의식의 괴리 등을 이해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연구 성과 자체를 비판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앞으로 재일 한인 문학 연구의 방향이 소설작품에 한정된 논의를 넘어서 시, 평론, 수필 등의 장르를 포괄하는 연구범위의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일 한인 문학의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사적 성찰이 요구된다. 즉 해방 이후 재일 한인 문학의 양상에서 소설적 성취 못지않게 허남기, 강순, 김시종 등의 시문학이 상당히 중요한 문학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으로부터 재일 한인 시문학의 양상과 의미를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특히 1960년대 재일 한인들에 의해서 발간된 한글 종합지 『한양』에 수록된 시작품을 대상으로, 당시 재일 한인 시인들의 이데올로기적 특성과 조국의 역사적 현실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 그리고 재일 한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의 내면화 양상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양』의 창간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한 지식인들이 그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발표할 만한 매체가 없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재일교포로서 남한과의 문화적 교류와 연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한양』은 일본 동경에서 발간되었으므로 1960년대 한국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억압으로부터 조금은 비껴선 자리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양』은 당시 한국

1) 이한창, 「재일교포문학의 작품 성향 연구 - 정치의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중앙대 박사논문, 1996; 유숙자, 『재일 한국인 문학연구』, 월인, 2000; 홍기삼 편, 『재일 한국인 문학』, 숲, 2001; 김환기 편,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새미, 2006; 김학동, 「민족문학으로서의 재일조선인 문학 - 김사량·김달수·김석범을 중심으로」, 충남대 박사논문, 2007.

에서 발간된 여타의 매체들에 비해 한국 내부의 문학적 쟁점과 정치사회적 억압과 모순의 실상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즉 조국의 역사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재일 한인으로서의 현실적 조건이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적 모순, 남북문제 등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는 동인(動因)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양』에 수록된 문학작품의 성격은 참여문학론, 민족문학론, 리얼리즘문학론 등 1960년대 이후 한국문학의 주요 쟁점들을 초점화하는 현실주의적 특성을 두드러지게 표방하였다.²⁾

『한양』의 창간은 해방 이후 재일 한인 시문학 활동이 그 양과 질의 측면에서 동시에 두드러진 면모를 보이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한양』에 발표된 시작품의 수는 창간호(1962년 3월호)부터 종간호(1984년 3·4월호, 통권 177호)까지 2천여 편에 이를 정도로 방대했다. 여기에는 당시 한국 내에서 활동했던 시인들과 재일 한인으로 추정되는 시인들 그리고 일본 외에 거주하는 재외 한인들의 시작품을 총 망라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당시 『한양』의 시문학은 한민족 시문학의 총체적 모습을 반영하는 중요한 문학사적 성과물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한국 시문학 연구에 있어서 『한양』의 자리는 철저하게 은폐되

2) 지금까지 발표된 『한양』 관련 연구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하상일, 「재일 한인 잡지 소재 시문학과 비평문학의 현황과 의미」, 『한국문학논총』 42집, 한국 문학회, 2006 ; 이현홍, 「『한양』 소재 재일 한인 문학의 연구 방향과 과제」, 『한국 민족문화』 25집,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5 ; 하상일, 「1960년대 현실주의 문학비평 연구 - 『한양』, 『청맥』, 『창작과비평』, 『상황』을 중심으로」, 부산대 박사논문, 2005 ; 하상일, 「1960년대 문학비평과 『한양』」, 『어문논집』 50호, 민족어 문학회, 2004 ; 박수연, 「1960년대의 시적 리얼리티 논의 - 장일우의 『한양』지 시평과 한국 문단의 반응」, 『한국언어문학』 50집, 한국언어문학회, 2003 ; 허윤희, 「1960년대 참여문학론의 도정 - 『비평작업』, 『청맥』, 『한양』을 중심으로」, 『희귀 잡지로 본 문학사』, 상허문화회 편, 깊은샘, 2002 ; 고명철, 「민족의 주체적 근대화를 향한 『한양』의 진보적 비평정신 - 1960년대 비평 담론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19집, 한민족문화학회, 2006 ; 한승우, 「『한양』지에 드러난 재일 지식인들의 문제의식 고찰」, 『어문논집』 제36집, 중앙어문학회, 2007.

거나 왜곡되어 있었다. 이는 반공이데올로기에 억압당한 우리 문학사의 이념적 폐쇄성이 가장 큰 원인이었음에 틀림없다.³⁾ 따라서 앞으로 전개 될 1960년대 시문학 연구는 역사적 왜곡과 소외를 뛰어넘는 연구대상의 확대가 필요하고, 이념적 폐쇄성을 극복하는 새로운 방향에 대한 뚜렷한 문제의식을 지녀야 할 것이다.

II. 『한양』 소재 재일 한인 시문학의 현황

본 연구는 『한양』에 발표된 2천여 편의 시작품 가운데 재일 한인으로 추정되는 시인들이 1960년대에 발표한 시작품⁴⁾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그런데 『한양』에 시를 발표한 시인들의 실체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재일 한인 시인이라는 한정된 범주 안에서 텍스트를 선정하고 확정하는 작업은 시작부터 커다란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또한 당시 상당수의 시인들이 필명으로 시를 발표했거나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이름으로 시를 발표한 경우도 있었으므로 이들을 한 사람의 재일 한인 시인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 역시 아주 빈약하였다. 텍스트 확정 과정에서 비롯된 이러한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당시 『한양』에 시를 발표한

3) 『한양』은 유신정권이 조작한 문인간첩단사건(1974년)으로 인해 1970년대 중반부터 국내로의 유입이 사실상 금지되었고, 이호철, 김우중, 임현영 등 국내 문인들이 북의 자금을 받았다는 명목으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의 희생양이 되어 크게 고초를 겪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한양』은 조총련계가 아닌 민단체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은 잡지였고, 일본에 있는 한국공보관 전시대에도 꽃혀 있을 정도였으므로 반국가적인 잡지라고 규정할 근거는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이 날조 조작되었던 결정적 이유는, 당시 유신정권에 반대한 몇몇 문인들을 억압하기 위한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조작에 『한양』이 철저하게 이용당했기 때문이다.

4) 1962년 3월호 ~1969년 10·11월호까지 『한양』에 발표된 시작품이 본 연구의 대상이다.

시인들의 전기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언해 줄 사람이 현재로서는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양』에 최소 5편 이상의 시를 발표한 시인들 가운데 명확하게 국내 시인임을 알 수 있는 경우나 일본 외에 거주하는 재외 교포 시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재일 한인 시인으로 추정하고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이들의 시작품 가운데 재일 한인으로서의 자기정체성(identity)을 주요 소재나 정서로 삼고 있는 것을 우선적인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경련, 김성호, 김운, 박기원, 박일동, 신재현, 윤동호, 정영훈, 황명동의 시작품을 특별히 주목할 수 있었다.

1960년대 『한양』에 발표된 시문학의 주제적 특성을 분석해보면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고향 상실의 비애와 조국을 향한 근원적 그리움을 노래한 것, 둘째, 조국의 역사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참여시의 성격을 표방한 것, 셋째, 재일 한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담아낸 것, 넷째, 이국의 땅에서 자연을 통해 내면화한 자기성찰과 내적 의지를 구현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가운데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첫째와 둘째의 경향으로, 재일 한인들의 근원적인 의식의 토대와 4월혁명을 비롯한 한국의 정치사회적 상황에 대한 비판적 참여 의식을 아주 두드러지게 쟁점화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재일 한인 시문학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핵심적 주제일 뿐만 아니라, 1960년대 한국 시문학과 재일 한인 시문학의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한양』에 시를 발표한 국내 시인의 수는 아주 많다. 고원, 김남석, 김소영, 김어수, 김용호, 김정숙, 김지하, 김지향, 박두진, 박보운, 박봉우, 박일송, 박정은, 신동집, 신석정, 안도섭, 안장현, 양상경, 양성우, 유경환, 이복숙, 이상화, 이설주, 이종석, 이준범, 이태극, 장수철, 조태일, 최승범, 홍윤숙, 황갑주 등이 적게는 5편 내외, 많게는 20편 이상의 작품을 발표하였다. 이들 국내 시인들과 재일 한인 시인들 간의 관계가 명확히 밝혀

진다면 『한양』의 시문학은 더욱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한양』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을 알고 있는 발행인 겸 편집인이었던 김인재 선생이 관련 사실과 필자들의 면면에 대해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어서, 『한양』 소재 재일 한인 문학 연구는 수 년에 걸쳐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⁵⁾ 그나마 지금까지 국내와 일본의 재일 한인 문학 연구지들에 의해 조금이라도 언급된 『한양』 소재 재일 한인 시인은 김윤⁶⁾뿐이고, 김성호, 윤동호, 정영훈 정도가 『한양』을 통해 시와 평론 활동을 병행했다는 사실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전부이다.

김윤은 조총련 계열이 아니라 민단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글로 시를 써온 특이한 이력의 시인이다. 그는 1932년 경남 남해 출신으

5) 필자는 2006년 1월과 2007년 1월 두 번에 걸쳐 일본 동경에서 『한양』과 관련된 실증적 부분을 확인해 보았으나, 당시 이 잡지에 관여했던 몇몇 분들의 경우 원고청탁에 응해 원고를 발표한 정도에 그칠 뿐 『한양』의 필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은 전혀 알지 못했다. 『한양』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발행인 겸 편집인이었던 김인재 선생인데, 당시 상황과 필자들의 면면에 대해서 끝끝내 침묵으로 일관하여 지금으로선 그 실체를 전혀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김인재 선생의 말들을 근거로 조심스럽게 유추해보면, 당시 『한양』에 시, 소설, 비평, 수필 등을 발표한 상당수의 고정 필자들은 필명으로 활동한 국내 문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국내 문인들이 지금에 와서조차 『한양』에 발표한 작품들을 자신의 작품이라고 밝히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남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필자는 이런저런 정황으로 미루어 당시 『한양』의 많은 필자들이 조총련 계열의 문인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추정해본다. 왜냐하면 당시 조총련 계열의 문인들이 민단 계열의 『한양』에 작품을 발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름을 필명으로 대체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까지 일본에서 정리된 재일 한인 문학사에서 『한양』에 작품을 발표한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6) 김환기, 「재일 코리언 문학의 계보」, 김환기 편,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새미, 2006, 25쪽 ; 이소가이 지로, 『“在日”文學論』, 新幹社, 2004, 7~112쪽(본고에서는 「식민 제국과 재일 조선인 문학의 조망」, 김환기 편, 위의 책, 123쪽) ; 하야시 고지, 『戰後非日文學論』, 新幹社, 1997, 7~103쪽(본고에서는 「해방 이후 재일 조선인 문학과 민족분단 비극의 인식」, 김환기 편, 위의 책, 128쪽).

로 진주농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국대학을 중퇴했다. 1950년대 전시 연합대학 시절 부산에 모인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발간한 『신작품』의 동인(고석규, 천상병, 송영택, 김재섭, 김소파, 이동준)으로 활동했는데, 2집에 「호수」, 3집에 「나무」, 4집에 「가을」을 발표했고, 5집부터는 동인 명단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당시에는 그의 본명인 김동일(金棟日)로 시를 발표하였고,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김윤이라는 필명으로 『한양』을 중심으로 시창작 활동을 펼쳤다. 『현대문학』 동경지사장을 맡은 인연으로 두 권의 시집을 현대문학사에서 발간했는데, 『멍든 계절』(1968), 『바람과 구름과 태양』(1971)이 있다.

김성호는 70년대 후반 한국의 시인들인 양성우, 조태일, 황명걸, 고은, 김준태 등의 시에 대해 「죽창을 다듬는 민중의 시인들」(1978년 3·4월호~1978년 7·8월호, 3회 연재)이란 제목으로 연재평론을 썼고, 양성우의 일본어 시집 『노예수첩』의 해설을 썼으며(1977년 7·8월호), 김지하의 대설 『南』이 『한양』에 연재되는 것에 대한 논평(1983년 3·4월호)과 고원의 시집 『미루나무』에 대한 서평(1977년 4·5월호)을 썼다는 정도 외에는 그 면모를 확인할 길이 없다.

운동호는 장일우, 김순남과 더불어 『한양』을 중심으로 활동한 대표적인 평론가 가운데 한 사람인데, 「현실투시의 각도」(1964년 1월호), 「현실과 문학의 얼굴」(1975년 2·3월호), 「‘참여’ 재론 - 건전한 비평자세를 위하여」(1977년 2·3월호), 「분노의 시, 항거의 노래」(1978년 5·6월호~1978년 7·8월호, 2회 연재), 「조국통일과 문학」(1973년 2·3월호) 등의 평론을 발표하였다. 평론제목에서 충분히 알 수 있듯이, 운동호의 비평 세계는 문학과 현실의 관계를 중심에 두고 비판적 참여의식을 표방한 『한양』의 현실주의 문학관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었다.

재일 한인 시문학사에서 1960년대 『한양』에 가장 많은 시를 발표한 정영훈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는 사실은 상당히 의외가 아닐 수 없다. 그는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까지 「사월의 시」(1974년 4·5월호),

「시인의 얼굴」(1969년 8·9월호), 「지상의 시 지하의 시」(1969년 4월호) 등 세 편의 평론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여느 시인들에 비해 아주 뚜렷하게 재일 한인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시적으로 형상화한 시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외에 『한양』 전 기간에 걸쳐 가장 많은 시를 발표한 시인이 바로 경련인데, 필명일 가능성에 무게를 둘 뿐 구체적인 행적이나 활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선 전혀 없는 상태이다.

이처럼 지금까지 『한양』 소재 재일 한인 시문학의 양상은 기본적인 서지 사항은 물론 시인들의 연보나 구체적인 작품 활동에 대해서 전혀 규명된 적이 없는 사실상의 백지상태이다. 게다가 『한양』은 당시 재일 한인 문학의 중심에 있었던 김석범, 김시중 등의 문인들과도 특별한 교류가 없었던 독자적인 매체였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한양』의 시문학이 재일 한인 시문학의 특수성을 선명하게 반영하는 잡지였다고 규정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김환기에 의해서 정리된 <재일 디아스포라 작가 소개>⁷⁾를 살펴봐도, 강순, 김시중, 오림준, 종추월, 허남기 등만이 재일 한인 시문학사에서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재일 한인 시문학사에서 『한양』의 시문학이 지닌 문학사적 의미는 앞으로 더욱 실증적인 연구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Ⅲ. 『한양』 소재 재일 한인 시문학의 주제의식

재일 한인 문학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재일 한인들의 자기 정체성, 즉 「아이덴티티의 추구」를 중심에 놓지 않을 수 없다. 식민지 시

7) 이 목록은 「재일작가의 전모」, 『신일본문학』(신일본문학회, 2003년 5·6 합병호 특집), 김훈하, 『재일조선인여성문학론』(작품사, 2004), 모리타 스스무·사카와 아키 편, 『재일코리아인선집』(토요미술사출판판매, 2005) 등에서 재일 작가들 소개한 자료를 토대로 정리되었다. 김환기 편, 앞의 책, 581~598쪽.

기부터 해방 이후에 이르기까지 재일 한인 문학의 성격은 크게 네 가지 아이덴티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저항적 아이덴티티, 민족적 아이덴티티, 재일적 아이덴티티, 실존적 아이덴티티가 바로 그것이다.⁸⁾ 이는 재일 한인들의 문학적 지향을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재일 한인 문학의 주제의식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기준이 된다. 물론 이 네 가지 아이덴티티는 명확히 구분되거나 완전히 독립적인 성격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재일 한인 문학의 성격에서 ‘저항적’, ‘민족적’, ‘재일적’, ‘실존적’이라는 특성은 혼재되거나 미분화된 상태에서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양상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네 가지 양상으로서의 구분은 다소 도식적인 접근이 되어 재일 한인 문학의 특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일 한인 문학의 내적 특성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네 가지 정신적 지향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논리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재일 한인 문학 작품의 실제적 양상과 네 가지 아이덴티티의 방향이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구분은 재일 한인 문학의 특성을 이해하는 실증적이고 귀납적인 유효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1. 고향 상실의 비애와 조국을 향한 근원적 그리움

해방 당시 200만 명 이상에 달했던 재일 한인들 가운데 1945년 8월에서 1948년 8월까지 조국으로 귀환한 동포의 수는 약 150만 명 정도였고, 나머지 50~60만 명 정도는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일본에 남게 되

8) 저항적 아이덴티티는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주제로 하고 그것을 고발하는 데서 구현되는 것이고, 민족적 아이덴티티는 조국(조국의 상황)으로서의 귀일 감정과 통일 지향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며, 재일적 아이덴티티는 일본 국가와 사회가 초래하는 부조리에 대항함으로써 방향지어지는 것이고, 실존적 아이덴티티는 인간 존재를 내면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찾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소가이 지로, 앞의 글, 65~66쪽.

어 지금의 재일 한인 사회를 형성하였다. 이후 일본에 남았던 재일 한인들 가운데 80% 이상이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했지만, 조국의 정치적 상황이 더욱 악화된 데다 생계에 대한 전망마저 불투명한 조국의 경제적 상황은 그들의 귀국을 가로막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당시 재일 한인들 대부분은 조국으로의 귀환을 사실상 포기하고 일본 땅에서 영원한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담담하게 받아들여야만 했다. 식민지 망국민으로서의 설움을 벗어나 해방의 기쁨을 만끽할 겨를도 없이 오히려 일본인으로 살아가기를 강요당했던 재일 한인들의 정신적 상처는 상당히 컸음에 틀림없다. 이 때문에 해방 이후 재일 한인들에게 조국은 근원적 그리움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고, 고향 상실의 비애와 상처는 재일 한인들의 내면을 형성하는 가장 근원적인 토대로 자리잡게 되었다.

어릴적 업혀서 온 길은/어머니의 피 눈물로 만리/내 늙어서 갈 길은/
고향도 병들고/나도 병들어 못 가는 구만리//((중략))//故國땅 向한/불타
는 鄉愁에/울 듯 울 듯 눈물도 말라버린/내 가슴속에 숨어서 타는/불을
보는가/불을 보는가

- 경련, 「못가는 九萬里에!」(1963년 6월호) 중에서

‘고향이란 참 그리운 것’/그렇게 쓰다가는 찢어 버린다.//((중략))//‘고향
이란 가고픈 곳’/이렇게 생각다가도/살이 쭈시게 추우면 봄이 정 그리워
/멈추고 마는 편지//이런 편지는/언제나/쓰다가는 찢어버리고 만다.

- 김윤, 「편지」(1965년 4월호) 중에서

고향이 그리워서/눈을 감으면/삼삼히 떠오르는 정든 마을이/때 아닌
살구꽃으로/꽃으로 온통 덮이었구나//((중략))//기약도 없이 넘는 황토 언
덕 위에서/마지막 돌아 본 마을 어귀에/앞이 그만 흐리도록 환하게 피어
있은/그 날의 그 꽃을 평생 못잊어//칼바람 울부짖는 이러한 밤에/조차/
고향은 살구꽃이 한창이란다.

- 정영훈, 「고향에의 敍情(1)」(1966년 3월호) 중에서

제일 한인들에게 ‘고향’은 자신의 정체성을 내면화하고 실천하는 가장 근원적인 토대였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은 “고향도 병들고/나도 병들어 못 가는”, 그래서 고향을 향해 편지를 쓰고 또 쓰지만 “언제나/쓰다가는 찢어버리고 만다”는 점에서 고향 상실의 비애는 더욱 극에 달한다. “눈을 감으면/삼삼히 떠오르는 정든 마을”인 고향은 이제 영원히 상실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절망적 현실인식이 제일 한인 시인들의 내면에 깊숙이 각인되는 것이다. 지금 그들이 마주한 이국의 현실이 “칼바람 울부짖는” 밤이란 점에서 내면의 상처와 고통은 더욱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지금도 “고향은 살구꽃이 한창”이므로, 화자는 “기약도 없이 넘는 황토 언덕 위에서” 바라본 “그 날의 그 꽃을 평생 못잊어”하는 것이다.

해외에서 우리 동포들이 느끼는 조국에 대한 정서는, 첫째, “조국과 떨어져 살아온 생활의 체험을 통하여 사무치게 느끼는 조국의 귀중함에 대한 뜨거운 감정정서”이고, 둘째, “어머니 조국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그 품에 안기고 싶은 열화 같은 지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감정정서”⁹⁾이다. 서정시의 본질을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정의한다면, 잃어버린 자기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서정적 주체의 내면의식이 근원적 그리움의 대상인 고향을 지향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더군다나 지금 고향을 향하는 마음이 상실의 비애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면 고향을 향한 시적 자아의 열망이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분단의 상처와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극에 달했던 1960년대 조국의 현실은 이러한 근원적 상실감을 내면화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을 것이다. 1960년대 『한양』의 시문학에서 고향 상실의 비애와 조국을 향한 근원적 그리움이 가장 두터운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주제의식을 형상화한 시작품들을 정리하면, 경련의

9) 손지원, 「조국을 노래한 제일조선시문학 연구(1)」, 『겨레문학』 창간호, 2000년 여름호, 64~65쪽.

「동경」, 「다리」(1962년 3월호), 「현해탄」(1962년 6월호), 「기적소리」(1963년 2월호), 「조국」, 「어머니」(1965년 7월호), 「조약돌」(1965년 1월호), 「어머니 나라」(1966년 7월호), 「낙동강」(1968년 4월호), 정영훈의 「유랑시초」(1962년 11월호), 「제삿날」, 「언제면 언제면」(1963년 4월호), 「思鄉譜」(1969년 7월), 박일동의 「기원」, 「편지」(1965년 8월호), 「메아리」, 「소곡」(1967년 5월호), 박기원의 「꽃의 사투리」(1963년 4월호), 「山房過冬抄」(1966년 2월호), 김윤의 「새해를 맞아」(1966년 1월호), 「소품」(1967년 9월호), 「가을」(1967년 11월호), 「동삼제」(1967년 12월호), 「그리움」(1968년 4월호), 「봄바람」(1968년 5월호), 「어머니」(1968년 9월호), 윤동호의 「淚如雨」(1965년 10월호) 등이 있다.

2. 조국의 역사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참여

해방 이후 제일 한인 문단은 좌파계열의 <재일본조선인연맹>의 하위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재일본조선문학자회>의 구성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이들은 일본제국주의 잔재의 소탕, 봉건주의 잔재의 소탕, 국수주의의 배격, 조선문학의 국제문화과의 제휴, 문학의 대중화 등 다섯 가지 강령을 표방하였다.¹⁰⁾ 또한 당시 김달수, 허남기를 비롯한 제일 한인 문인들의 상당수는 나카노 시게하루(中野重治)를 핵심으로 한 『신일본문학』과도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기도 했다. 결국 이들의 문학은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이념을 일관되게 견지함으로써 조국의 역사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참여의 성격을 강하게 표방하였다. 즉 제일 한인 문학은 당대의 정치사회적 현실을 직접적으로 담아내는 반영론적 특성을 두드러지게 부각시키는 리얼리즘적 인식과 태도를 문학의 본질로 수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제일 한인 문학의 리얼리즘적 전통은 1960년대까지 온전히 이

10) 서용철, 「재일조선인문학의 시동(始動) - 김달수, 허남기를 중심으로」, 『복각 민주조선 별권』, 민주조선사, 1993, 50쪽.

어저 『한양』의 시문학은 당시 우리 조국의 역사적 현실과 구조적 모순에 대한 준엄한 비판의 목소리를 강도 높게 드러냈다. 해방 이후 식민지 잔재의 청산을 통해 진정한 민족해방을 실현하고자 했던 재일 한인으로서의 민족적 의지와 실천이 4월혁명 이후 격변하는 조국의 역사적 현실에 대한 냉정한 비판과 성찰로 이어졌던 것이다.

四月아!내가 왜 창자를 주리고 살아야 하는지/내가 왜 꿈도 없이 걸어가야 하는지/너는 진정 나의 스승이 되어준 달//너는 나에게/자유란 무엇인가를 배워주었고/너는 나에게/곧바른 이정표를 가르쳐 주었더라
//(중략)//아! 이땅에 청춘을 불러오는 달아/지옥과도 같은 이 무서운 세상에서/나의 마음은 햇불을 태우며/네가 정녕 내가 몹시도 기다려지는 구나

- 경련, 「四月아!」(1963년 4월호) 중에서

四월은 내 나라 아버지들의 자랑이었다/四월은 내 나라 어머니들의 눈물이었다/그 아버지들의/그 어머니들의/그 문과 전우들의/가슴과 가슴에 살아/四월이 돌아오고/四월이 울부짖고 있다/四월이 깃발을 추켜 들고 있다//피 흘린 아들들의/별같은 눈동자가/어제도 오늘도 내려 보고 있는/廣場에/봄을 찾아 四월이 걸어 오고 있다 …

- 박일동, 「四月은」(1964년 4월호) 중에서

해마다 가 버렸네 그대 가신 그 계절/해마다 돌아오네 그대 가신 이 계절//((중략))//전설이 아니었다 살아 뜨거운 것/다시 다시 눈부실 광장과 산과 들에/뉘이어 오시라/뉘은 달려 오시라//四月은 꽃피는 달 꽃으로 피어/수수억만 떨기떨기 붉은 피를 뿜어라

- 정영훈, 「四月의 招魂」(1968년 4월호) 중에서

1960년대 조국의 현실은 이승만 독재정권으로 표면화된 낡은 세대의 구조적 모순을 개혁함으로써 참다운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던 4월혁명의 역사적 상징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한양』은 이러한 4월혁명의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창간되어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논설이나 논문·비평 등을 통해 현실비판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냈다.¹¹⁾ 『한양』은 창간사에서, “미군정과 이승만정권, 장면정권, 그리고 오늘의 혁명정부 - 이렇게 한국은 아우성치며 달려가고 있다. 그 많은 역사의 장마다 갈피갈피 숨은 이야기는 끝이 없고 그 많은 이야기 속에 조국은 고동치고 있다.”라고 당대를 규정하면서, “잡지 『한양』은 이에 무심할 수 없는 우리 겨레의 양식이 될 것이며, 고동치는 조국의 넋을 담은 국민들의 公器로 될 것이다.”¹²⁾라고 선언하였다. 따라서 『한양』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경제원조에 의지하면서 민족의 자립경제를 구축하지 못한 채 반민주적 파행으로 치달은 이승만 독재정권과 4월혁명의 민족적·민주적 역량을 결집해내지 못한 장면정권의 무능력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이를 통해 4월혁명의 시대정신을 실천하는 문제제와 박정희 정권이 주도한 개발독재식 근대화 정책을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1960년대 한국의 근대화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다.¹³⁾

1960년대 『한양』의 시문학은 이와 같은 잡지의 창간정신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조국의 역사적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비판적 참여시로서의 성격을 두드러지게 지향하였다. 1960년대 『한양』이 표방한 참여문학의 논리는 한국의 역사적 현실을 구체적으로 문제삼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즉 한국적 현실을 떠나서 한국의 참여문학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문학과 현실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비판적 현실인식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4월혁명은 당시 상당수의 문인들에게 진정한 사회참여의 당위성을 호소력 있게 인식시켜준 역사적 사건으로, 순수문학에 대한 전면적 비판을 통해 현실참여의 정신적

11) 1960년대 『한양』의 비평이 표방한 현실주의적 성격에 대해서는, 하상일, 「1960년대 문학비평과 『한양』」, 앞의 책을 참조할 것.

12) 「창간사」, 『한양』, 1962년 3월.

13) 이러한 점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고명철, 「민족의 주체적 근대화를 향한 『한양』의 진보적 비평정신 - 1960년대 비평담론을 중심으로」, 앞의 책을 참조할 것.

바탕을 확립하게 함으로써 한국문학의 변화와 혁신을 가져오는 중요한 역사적 계기로 발전하였다. 당시 『한양』은 비록 일본에서 발행되는 잡지였지만, 한국의 역사적 현실을 방관자가 아닌 주체자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성찰하는 가장 실천적인 정론지의 성격을 표방하였다. 4월혁명의 시대정신을 창간정신으로 민족의 주체적 역량을 결집하는 가장 진보적이고 실천적인 운동성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한양』의 시문학은 1960년대 한국문학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뚜렷한 방향성을 확보함으로써, 조국의 역사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참여의 성격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었음에 틀림없다.

1960년대 『한양』의 시문학에서 이와 같은 주제적 특성을 지닌 작품에는, 경련의 「침묵의 시」(1964년 2월호), 「팔없는 소녀」(1967년 5월호), 박일동의 「광장」(1964년 4월호), 「기도」(1965년 3월호), 박기원의 「몸부림치는 태극기」(1965년 8월호), 김윤의 「사월이 오면」(1966년 4월호), 신재현의 「4·19의 용사들에게」(1966년 4월호), 「해방을 맞던 날」(1966년 8월호), 황명동의 「해협」(1968년 1월호) 등이 있다.

3. 재일 한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 구현

재일 한인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는 시점부터 민족주체성의 확립과 일본사회의 차별에 대한 저항과 갈등은 재일 한인 문학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조선에서 태어나 식민지 조선에서 성장하였고 모국어인 조선어의 사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민족의식을 형성했던 1세대들과는 달리 2세대들은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어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그들은 1세대처럼 식민지 체험을 통해 민족의식을 형성하지는 못했고, 일본에서 성장하면서 ‘조센징’ 혹은 ‘경계인’으로서의 극심한 차별을 겪으며 민족의식을 형성했던 세대이다.¹⁴⁾ 이런 점에서 재일 2세대

14) 장사신, 「재일 한민족 문학에 나타난 내서널리즘」, 『현대문학연구』 제21집, 한국현대문학회, 2007, 419쪽.

작가인 김학영이 말한 “나는 내가 조선인이면서 거의 일본인과 다름없는 심정으로 주위를 보고 듣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내 안의 조선인의식은 항상 관념으로서의 민족의식이었지 실제 느낌으로서의 의식은 아니었다”¹⁵⁾라는 고백은, 재일 한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의 혼란을 보여주는 것이란 점에서 상당히 주목된다. 1960년대 『한양』의 시문학은 이러한 민족적 정체성의 혼란과 갈등을 초점화함으로써 재일 한인들이 이국의 땅에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차별과 억압의 고통을 형상화하는데 주력하였던 것이다.

이야기를 그만 듣시다/그 사람은 우리말을 듣지 못하오//귀에 대고
 껍떡 소리를 질러도/한국말이라서 말을 듣지 못하오//(중략)//洋語로는
 洋商人과/필아먹는 흥정을 곧잘 하는데//천둥처럼 땅 흔드는 한국말은/
 韓人의 말이라서 귀가 먹은 사람//이야기를 그만 듣시다/그 사람관 이야
 기를 그만 듣시다.

- 박일동, 「말」(1964년 2월호) 중에서

胡地엔 문힐 수 없어//異域의 가시마(借間)의 반침 구석에/풀지 못한
 보따리에 주머니 속에/숨어 사는 한줌 벼 씨는/씨 채로 二十年//(중략)//
 北九州 탄광으로, 오오사카로/요꼬하마 부두로 시나가와로/主人이 흘러
 가면/나도 흘러가고/主人이 머무르면/나도 머무르고//兄弟 아니면 서럽
 더라/제 고장 아니면 서럽더라

- 윤동호, 「씨앗의 노래」(1964년 3월호) 중에서

저 흰구름이 거기로 흘러갈 때/나는 그쪽을 바라보며 눈을 감는다//
 (중략)//가난과 망향이 알갭게 엉켜어져/말마저 고스란히 까먹어 버린/
 숨가쁜 나날이 愁情을 베풀고/李서방 金서방 河서방이/야마다상 가나이
 상 가와도도상으로 덩굴어져 버린/기막힌 울안에서/내가 나일 수 있고/
 너가 너일수 있고/우리가 우리일 수 있는/그런 이치를 풀이해 본다//허
 나/그 많은 얼굴들이 거기를 잃고/그 많은 얼굴들이 어머니를 잃고/쓰림

15) 김학영, 「얼어붙은 입」, 『金鶴泳作品集』, 作品社, 1986, 30쪽.

한 배가죽을 웅켜 안고/아슬아슬한 세월을 적적히 살아 온/역사를 우리가
까먹을 수는 없다.

- 김윤, 「내가 나일 수 있는 ……」(1966년 2월호) 중에서

박일동의 「말」은 재일 한인들의 언어적 정체성의 혼란을 두드러지게 쟁점화하였다. 재일 한인들에게 언어는 민족의 등가물이므로 우리말의 사용은 민족의식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지 않을 수 없었다. 1960년대 「한양」은 민족의식의 재정립이라는 차원에서 일본의 식민지정책으로 인해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약탈당했던 현실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언어의식을 강력하게 표방하였다. 즉 일본어에 빼앗겼던 우리말과 글을 되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최소한 재일 한인들 사이에는 우리말과 글을 쓸 것을 주장하는 일련의 글을 게재하였다.¹⁶⁾ 이런 점에서 박일동의 시는 “우리말을 듣지 못하”고 “한국말이라서 말을 듣지 못하”는, “韓人の 말이라서 귀가 먹은 사람”들을 향해 “그 사람관 이야기를 그만둬시다”라고 단호한 태도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윤동호의 시는 “胡地”라는 말에 이미 나타나 있듯이 조국을 등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재일 한인들의 모습을 “풀지 못한 보따리에 주머니 속에/숨어 사는 한줌 벼 씨”로 형상화하고 있다. “胡地엔 묻힐 수 없”다는 재일 한인들의 절박한 삶의 조건은 “北九州 탄광으로, 오오사카로/요꼬하마 부두로 시나가와로” 끊임없이 이주를 거듭해 온 유이민으로서의 생활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兄弟 아니면 서럽더라/제 고장 아니면 서럽더라”고 말하는 그들의 고백은 재일 한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내면화한 슬픈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재일 한인들은 “가난과 망향이 알갭게 엉클어져/말마져 고스란히 까먹어 버린/숨가쁜 나날”을 살아오면서, “아슬아슬한 세월을 적적히 살아 온/역사를 우리가 까먹을

16) 장효, 「언어와 민족 - 재일교포의 언어생활에 대한 단상」, 1964년 11월호 ; 남상철, 「국어사용을 일상화하자」, 1968년 10월호 ; 「민족의식과 언어생활」, 1968년 12월호.

수는 없다”라는 역사적 현실인식을 결코 놓치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재일 한인으로서의 존재와 운명은 근원적으로 조국과 민족을 떠나서는 정의할 수 없는 특수한 위치에 놓여 있다. 일본 내에서 그들이 겪은 삶의 애환과 망향의 노래는 조국의 역사적 현실과 맞물려 민족적 정체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근원적 상처로 자리잡았다. 즉 이국 땅에서 생존을 위해 일본어를 선택함으로써 조국의 언어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며 살아야 했던 언어의식의 혼란, 탄광으로 부두로 하급노동자로서의 삶을 전전하면서 형제와 조국을 잃어버리지 않으려 애썼던 이방인으로서의 경계의 고통이 아주 깊숙이 각인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그들은 재일 한인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묻고 또 물으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무거운 시대적 책임, 즉 지난 역사의 상처와 고통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재일 한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굳은 신념을 내면화하였다. 이처럼 1960년대 『한양』의 시문학은 재일 한인으로서의 특수한 상황을 직시하고 민족적 정체성과 재일 한인으로서의 고통스런 현실 사이에 가로놓인 부조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데 주력했다.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고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는 인식이 나, “내가 나일 수 있고/너가 너일수 있고/우리가 우리일 수 있”다는 태도는, 민족적 정체성의 확립을 통해 재일 한인으로서의 공동체성을 확보하려는 내적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60년대 『한양』의 시문학에서 이와 같이 재일 한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구현한 작품으로는, 경련의 「다듬이 소리」(1963년 5월호), 「一石의 弁」(1963년 7월호), 「거울 앞에서」(1964년 11월호), 정영훈의 「자유」(1964년 2월호), 윤동호의 「한치의 뜨락」(1964년 5월호), 황명동의 「그 알곡한 생물」(1968년 5월호), 김성호의 「三世의 우울」(1968년 5월호), 김윤의 「거기에로의 합창」(1969년 2월호) 등이 있다.

4. 자연을 통한 자기성찰과 내적 의지

재일 한인들에게 조국, 역사, 민족의 문제는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정신사적 토대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은 재일 한인 문학의 특수성을 구현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적 통로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의식은 재일 한인 문학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임에는 틀림없지만, 이와 같은 거대담론의 틀 안에서만 재일 한인 문학을 규정하는 것은 자칫 획일화된 결과를 양산할 우려가 있음을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특히 시문학의 경우에는 소설문학과 달리 역사적 주체보다는 개인적 주체가 더욱 두드러지게 표면화되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자연을 통한 자기성찰과 주체의 정서 표출이라는 서정시의 본질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태도는 재일 한인으로 살아가는 화자의 내적 의지와 시적 세계관의 상관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문제의식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재일 한인 문학 연구에 있어서 ‘자아 추구’의 방향은 대체로 재일 3세대 문학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즉 재일 1세대와 2세대의 문학이 타자에 대한 저항과 거부를 바탕으로 한 갈등을 쟁점화함으로써 공동체를 지향하며 민족의식을 보다 공고히 만드는 작업이었다면, 재일 3세대 문학은 개개인의 내면적 자아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주체적인 제3의 위치를 생성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제3의 위치’란 특수한 ‘재일’의 상황과 민족의식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재일 한민족의 의식을 찾는 것을 말한다.¹⁷⁾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재일 문학을 세대론적으로 이해하려는 이러한 시각은 다소 경직된 구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재일 한인 문학의 전체적 흐름을 볼 때 제3세대에게서 ‘자아 추구’의 양상이 두드러진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전 세대의 문학을

17) 장사선, 앞의 논문, 424~425쪽.

조국과 민족 그리고 역사의 방향으로 무조건 환원시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1960년대 『한양』의 시문학에서 자연을 통한 자기성찰과 내적 의지의 형상화를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엿걸어 놓은 板子쪼박/防水布누더기 축 늘어진 지붕 위에/눈이 내린
다/별거벗은 山위에/얼어붙은 캄캄한 내 마음 속에/눈이 내린다.//훈훈
한 溫氣서린 유리窓에/동그라미를 그리며/창밖을 내다보고 싶구나!//여
윈 팔다리 싸늘하게 식어든/벗짚같은 아이의 무릎을 만지며/내다보는
하늘빛, 하늘빛 --/뚝뚝한 이마와 손바닥을 窓유리에 대이며/핑핑 쏟아
지는 暁눈을 내다볼/아이의 입김이 그림다.

- 정영훈, 「눈이 내린다」(1963년 3월호) 중에서

잎 다 핀 후에/진달래꽃 다 진 뒤에/우거진 숲 그늘에 다소곳이/홀로
핀 철쭉꽃//그 어딜/가신 입을 기다리는 녀인가요/진정 와야 할 봄이 오
지 않아/지지 못하는 꽃인가요//(중략)//진정 봄은 다 갔어도/짓밟힌 봄
이었기에/늦은 봄 숲 속에/오래 오래 피는 꽃인가요.

- 윤동호, 「철쭉꽃」(1967년 5월호) 중에서

불통하게/春芽 부풀어 터지는 아침은/평화스러운 풍경이었다.//새로
운 것들이/낡은 皮殼을 뚫고/자라나는 모습은 위대하기도 했다.//지난날
들의 冬眠 속에서 얻은 교훈을/따스한 봄날에 뽐내는 모습은/정말 정답
기도 했다.//봄은/만상이 하늘을 향하여/부풀어 터지는 떳떳한 季節이기
도 하고//참아온 것들을/마음껏 소리쳐 외치는/季節이기도 한 것 같다.

- 김윤, 「春芽(II)」(1969년 4월호) 중에서

인용시에서 자연은 모두 순수한 상태로서의 자연이라기보다는 역사화 된 자연으로서의 의미를 더욱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식민지 이후부터 줄곧 견뎌야만 했던 이방인으로서의 삶의 고통은 재일 한인들에게 언제나 절망적 현실을 안겨주기 일쑤였지만, 역사화된 자연에 내재된 생명력은 새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준다는 점에서 사뭇 대조

적으로 인식된다. 다시 말해 자연은 재일 한인으로서의 역사적 상처를 근원적으로 치유하는 자기성찰의 매개체가 될 뿐만 아니라, 차별과 소외로 점철된 재일 한인 사회의 역사적 현실을 뛰어 넘으려는 화자의 내적 의지를 실천하는 상징물로 표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평평 쏟아지는 흰눈을 내다볼/아이의 입김”, “늦은 봄 숲 속에/오래 오래 피는 꽃”, “참아온 것들을/마음껏 소리쳐 외치는/季節”은, 자연을 통한 자기성찰과 내적 의지를 다지는 객관적 상관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재일 한인들 모두의 마음은 “불통하게/春芽 부풀어 터지는 아침”과 같이 “평화스러운 풍경”이 내면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다.

1960년대 『한양』의 시문학에서 이러한 서정시의 본질적 성격은 상당히 두드러진다. 즉 해방 이후 허남기, 강순, 김시종으로 이어져 내려온 시사적 전통이 역사와 민족에 대한 저항성과 실천성을 두드러지게 표방하였다면, 『한양』에는 이러한 역사적 부채의식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위치에서 서정시의 본질에 충실한 내면지향의 시들이 많이 발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재일 한인의 시문학을 역사와 민족이라는 거대담론의 체계 안에서만 파악하고 있는 기존의 연구방법에 대한 분명한 성찰을 요구한다. 즉 해방 이후 재일 한인 시문학에 대한 논의는 역사적 주체와 개인적 주체가 만나는 지점과 서정시의 장르적 특성에 바탕을 둔 시적 정서와 이미지를 함께 분석하는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1960년대 『한양』의 시문학에서 이러한 서정의 본질을 충실히 내면화하고 이를 토대로 재일 한인으로서의 주체적 의지를 다지는 시로는, 정영훈의 「바위」(1962년 7월호), 「추일단상」(1963년 11월호), 경련의 「冬風」(1962년 12월호), 「고백」, 「산」(1963년 8월호), 「故園詩抄」(1964년 6월호) 등이 있다.

IV. 맺음말

1960년대 재일 한인 시문학은 해방 이후 허남기, 강순, 김시중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시문학의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왔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이들의 시적 지향은 해방 이후의 정치사회적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과 조국을 향한 혁명의식을 내면화함으로써, 식민지 청년 지식인으로서의 내적 고뇌와 재일 한인으로서의 자기정체성에 대한 존재론적 성찰을 두드러지게 표방하였다. 또한 이들은 재일 한인 시문학과 한국의 시문학을 상호 교섭시키는 데도 상당히 많은 열정과 노력을 쏟음으로써, 『김지하 전집』(1974), 신경림의 『농무』(1977), 김수영의 『거대한 뿌리』(1979), 조태일의 『국토』(1980) 등의 시집을 일어로 번역하여 일본 시단에 소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이처럼 허남기, 강순, 김시중 등에 의해 주도된 해방 이후 재일 한인 시문학의 흐름은 소설문학의 흐름 못지 않게 아주 활발한 양상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재일 한인 문학 연구에 있어서 시문학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러한 요인과 무관하지 않게 그동안 『한양』의 시문학에 대한 연구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양』에 발표한 시인들의 경우 몇몇을 제외하고는 국내의 연구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일본 내의 재일 한인 문학 연구자들에게서조차 전혀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끝까지 의문으로 남는 게 사실이다. 『한양』이 간행된 이십여 년 동안 경련, 박일동, 정영훈의 경우 100편 이상의 많은 시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일 한인 시문학에서 이들의 위상은 전혀 정립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1960년대 재일 한인 시문학에서 『한양』의 시문학이 차지하는 위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한양』은 1960~1980년대에 이르는 이십여 년 동안 재일 한인 사회

의 이데올로기 형성과 담론적 실천에 지대한 공헌을 한 중요한 매체였음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수록된 시들은 재일 한인 시문학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거의 대부분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실증적 해명은 당시 잡지를 만들었던 실무자의 구체적인 증언만이 유일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양』의 발행인이자 편집인이었던 김인재 선생이 『한양』과 관련한 모든 사실을 합구하고 있는 지금으로서는 이러한 많은 의문들을 밝혀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지금까지 논의된 『한양』에 대한 연구가 재일 한인 문학 연구의 범주 안에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결정적 한계로 작용하기도 했다.

앞서 살펴봤듯이 『한양』의 시문학은 재일 한인 시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담아내는 중요한 텍스트로서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 또한 『한양』은 1960년대 한국 현실주의 문학의 형성과정에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한민족문학의 재구성이라는 차원에서 1960년대 한국 시문학과 재일 한인 시문학의 교섭 양상을 해명하는 비교문학적 자료로서의 의미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한양』은 한국현대문학사의 소외된 지점을 복원해내는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녔다는 점에서 국문학계로부터 상당히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한양』 관련 연구의 대체적 방향은 여전히 재일 한인 문학과 『한양』의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한양』의 외적 실체와 필자들의 면면에 대한 실증적 확인이 이루어진다면, 재일 한인 문학 연구에 있어서 『한양』이 지닌 위상도 새롭게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열어 가는 데 있어서 그 출발점으로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재일 한인 문학, 재일 한인 잡지, 재일 한인 시문학, 『한양』, 정체성, 1960년대 한국 시문학

참고문헌

1. 기본자료

『한양』 1962년 3월호 ~ 1969년 10·11월호.

2. 단행본 및 논문

고명철, 「민족의 주체적 근대화를 향한 『한양』의 진보적 비평정신 - 1960년대 비평 담론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19집, 한민족문화학회, 2006, 247~278쪽.

김환기, 「재일 코리언 문학의 계보」, 김환기 편,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새미, 2006, 15~46쪽.

서용철, 「재일조선인문학의 시동(始動) - 김달수, 허남기를 중심으로」, 『북각 민주조선 별권』, 민주조선사, 1993.

손지원, 「조국을 노래한 재일조선시문학 연구(1)」, 『겨레문학』 창간호, 2000년 여름호, 63~99쪽.

이소가이 지로, 김환기 역, 「식민 제국과 재일 조선인 문학의 전망」, 김환기 편,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새미, 2006, 47~123쪽.

이재봉, 「해방 직후 재일한인 문단과 ‘일본어’ 창작 문제」, 『한국문학논총』 제42집, 한국문학회, 2006.4. 359~390쪽.

이헌홍, 「『한양』 소재 재일 한인 문학의 연구 방향과 과제」, 『한국민족문화』 25집,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5, 101~122쪽.

이헌홍, 「재일한인 생활사의 수필문학적 형상과 의미」, 『한국문학논총』 제42집, 한국문학회, 2006.4. 319~357쪽.

장사선, 「재일 한민족 문학에 나타난 내셔널리즘」, 『현대문학연구』 제21집, 한국현대문학회, 2007, 407~433쪽.

하상일, 「1960년대 문학비평과 『한양』」, 『어문논집』 50호, 민족어문학회,

2004, 287~325쪽.

하상일, 「1960년대 현실주의 문학비평 연구 - 『한양』, 『청맥』, 『창작과비평』, 『상황』을 중심으로」, 부산대 박사논문, 2005.

하상일, 「재일 한인 잡지 소재 시문학과 비평문학의 현황과 의미」, 『한국문학논총』 42집, 한국문학회, 2006. 4, 391~417쪽.

한승우, 「『한양』지에 드러난 재일 지식인들의 문제의식 고찰」, 『어문론집』 제36집, 중앙어문학회, 2007, 247~268쪽.

<Abstract>

A Study on the Korean-Japanese's Poetry of *Hanyang*(『한양』) in the 1960s

Ha, Sang-Il

This thesis intend to study the Korean-Japanese's Poetry of *Hanyang*(『한양』) in the 1960s. *Han-yang* pronounced the critic spirit that requires the Korean literature to have clear awareness of the Korean history and reality by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iterature and reality, grounded on the spirit of that time affected by the April Revolution. So, it advocated the engagement party consistently in the debate of purism and engagement and criticized the falsehood of purism and the deformity of the conservative literary theory acrimoniously.

Especially, It criticized the deceptive attitude of purism which was isolated from reality by showing the tendency of superior-mysticism and also criticized the writers in the 1960s, who fell to aloofness and averted their eyes from the historical reality, as they didn't have a little sincerity and showed the absence of writer's awareness. After all, the critical attitude against purism, which grasped it as an attitude of deception or as an attitude of corruption and silence, was made possible by the expectation to pursue the real meaning of the standing engagement to bring change and renovation to the Korean literature.

It arranged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Korean-Japanese's Poetry of *Hanyang* in the 1960s from 2 chapters. It tried to observe the

subject ceremony of the Korean-Japanese's Poetry of *Hanyang*(『한양』) in the 1960s from 3 chapters. First, the origin yearning toward the sorrow and the fatherland of hometown loss was expressed. It professed the criticism participation with the history actuality of the second. It distinguished the nation true identity characteristic as the third, residing in the Korean-Japanese. Fourth, nature it led, the self-reflection which sand an inner will it put in and it put out.

Key Words : Korean-Japaneses's Literature, Korean-Japaneses's Magazine, Korean-Japaneses's Poetry, Han-yang, Identity, Literature in the 1960s